

# 보성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에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국비 3천만원 지원받아 내달부터 가족뮤지컬·클래식 등 5개 분야 공연

보성군문화예술회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보성군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족뮤지컬, 클래식, 대중음악, 뮤지컬 갈라쇼 등 5개 분야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 일정은 4월 25일 '가족뮤지컬 피터래빗' 5월 30일 '란 밴드 공연산책 We will rock you!' 8월 1일 '클래식과 민중음악 채동선과 함께 걷는 클래식 공연산책' 9월 26일 '클래식 해설이 있는 영화 러브 인 시네마' 10월 31일 '뮤지컬

갈라쇼 인생은 영화처럼'이 상연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관람해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공모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지역맞춤형 공연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람이 있는 문화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4월 25일 선보이는 '가족뮤지컬 피터래빗'.

/보성군 제공

2019 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  
고흥, 경제 활성화 부문 대상 수상

고흥군은 광남일보에서 주관한 '2019 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광주시 영주체육관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2019 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호남 최고권위의 풀뿌리 정책 경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심사가 이뤄졌다.

고흥군은 민선 7기 인구정책의 하나인 도시민 유치로 지역 내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문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지난해 고흥군의 귀농 귀촌 유치 실적은 717가구로, 이에 대한 노력으로 201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 2019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 귀촌 도시부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고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당 GRDP 3천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군민 소득 3천시대라는 시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군민 실질 소득을 높여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앞당기고자 분주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흥=윤규진 기자 jin2001@

## 곡성, 현장근로자 근무환경 적극 개선

### 환경미화원 등 50명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배포

곡성군이 미세먼지, 분진 등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환경미화원, 재활용 선별 작업자는 평소에도 분진, 청소차 배출가스 등 유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직업군이다.

설상가상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의 건강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성군은 먼저 환경미화원, 재활용선별장 청소차 운전공무원 등 50명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배포했다.

또한 청소차 배출가스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 구조 변경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또 현장 근로자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각종 감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질환예방 건강검진(CT)를 실시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현장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 광양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공모에 선정

### 3년간 20억 투자...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재 탄생

광양시는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의 '문화를 더(T·H·E)한 발삼길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문화를 더(T·H·E)한 발삼길'은 보행환경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일대 1.2km, 141천㎡에 광양의 맛을 더하고,

가로경관의 조화로우움을 더해 즐거운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비 6억 원과 시비 14억 원을 포함해 총 20억 원을 2021년까지 투자하며, 오는 6월부터 기본구상 및 실시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각 거리 특성에 맞게 보행안전 특화 디자인과 휴식공간을 마련해 특화 가

로 환경 개선, 문화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역량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정체성·안전성·가능성이 반영된 디자인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거리로 재탄생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찾는 광양의 대표적인 특화거리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오승택 기자 ost6002@

## '여수 담은 동영상' 8월 30일까지 공모

여수시가 아름다운 여수의 매력을 담고 있는 스마트폰 동영상을 공개 모집해 시상한다. 시는 '내가 발견한 여수의 매력'을 주제로 스마트폰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소재는 여수를 알릴 수 있는 명소, 역사적 사실, 상징물 등이다. 여수에서 열리는 독특한 행사와 축제, 이야기 등을 담은 영상도 가능하다.

공모전은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명(팀) 당 한 작품을 유튜브에 올린 후

공모기간 내 시 정보통신과 페이스북에 응모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심사는 9월 중 진행한다.

시는 최우수, 우수, 장려 등 30명(팀)을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시상할 계획이며, 상금은 총 1천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이 공모에 도전해 여수의 숨은 매력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오승택 기자 ost6002@



## 구례, 산수유꽃축제 대비 교육 실시

구례군은 지난 12일 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에서 숙박·일반음식점 영업자 530명을 대상으로 구례산수유꽃축제를 대비해 친절서비스 및 기존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20회 구례산수유꽃축제 등 봄철이 되면서 구례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절서비스 및 식중독예방 뮤지컬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노무관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례=심건식 기자 sgeonsik@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최상의 수익모델"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비전입니다.

SolaWin Q

**대성그룹 대성에너지(주)**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총점검의 날

## 새로운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대성그룹이 이끌어 갑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땅속과 하늘에서 물을 만드는 기술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